

S. Minuchin의 構造的家族治療理論의 韓國的 再照明

Korean Review on the S. Minuchin's Structural Family Therapy Theory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孫 偵 榮

*Dept. of Home Management
Sungkyunkwan University
Jeong Young Sohn*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 金 順 玉

*Dept. of Home Management
Sungkyunkwan University
Prof. : Soon Ok Kim*

目 次

I. 序 論	IV. 調查結果 및 分析
1. 問題의 提起 및 研究目的	1. 調查對象者의 社會人口學的 特性
2. 研究問題	2. 家族問題의 類型分類
3. 用語의 定義	3. 正常家族의 家族構造的 特性
II. 理論의 背景	4. 家族問題類型別 問題家族의 家族構造的 特性
1. 韓國家族의 家族問題類型	5. 韓國問題家族에 대한 S. Minuchin의 構造的 家族治療理論의 適用可能性
2. 韓國家族의 特性	V. 結論 및 提言
3. S. Minuchin의 構造的 家族治療理論	參考文獻
III. 研究方法	
1. 測定道具	
2. 標本抽出 및 資料蒐集	
3. 資料分析方法	

= ABSTRACT =

The concre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S. Minuchin's structural family therapy theory to each clinical families so that it can solve efficiently the clinical problems of Korean family.

The test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Results of Question I ; Types of Korean family problems can be divided into six. Then the most frequent type of problem was marital problem.

2) The Results of Question II ; Korean normal family showed rather difussed boundary and higher rate of wife dominant type than that of husband dominant type in aspect of boundary and power, and had low tendency toward alignment and neutral adjustment.

3) The Results of Question III ; Amidst the clinical families, family structural traits of the families which have marital problems showed a clear boundary, the tendency toward alignment, and higher rate of husband dominant type than that of wife dominant type. And family structural traits of children problem family had the tendency of alignment and showed little wife-dominanted families in power. Finally,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problem family had several characters such as diffused boundary, the tendency of alignment and high adjustment.

4) The Results of Question IV ; As a result of comparing problemed families with normal families in family structure, there was high adaptability of S. Minuchin's structural theory to the two family groups ; the groups of marital problems and those of children problems.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및 研究目的

家族은 사회조직의 가장 原初的 集團으로서 개인이 나서 자라 그의 人格이 형성되는 보금자리이며(李效再, 1978 : 3) 愛情과 信賴를 토대로 하는 가족원간의 따뜻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人間性을 回復시킴으로써 正常的인 社會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체계이다. 이러한 가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가족은 現代産業化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家族構造의 變化를 겪게 되고 이로 인해서 靑少年非行, 精神疾患, 老人問題, 離婚 등의 問題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質的으로 量的으로 증가하는 이러한 家族問題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家族問題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법은, 個人中心的인 精神分析의 영향을 받아 부적응행동을 일으킨 한 사람을 대상으로 個人의 精神內的 問題와 行動에 관심을 두고 치료를 하는 個別治療의 接近이었다. 그러나 세계 제2차대전, 한국동란, 원자탄투하 등의 여파로 家族의 結合이 강조되고(Guerin, 1976 : 2) 개인이 환경을 지배한다는 기존개념이 환경과 개인이 상호작용한다는 一般體系理論(General System Theory)으로 바뀜으로써 1950년대 이후부터는 問題行動을 하는 個人은 문제가족의 犧牲羊일 뿐이며 個人의 症狀은 그 家族의 問題가 외부로 表現된 것이라고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治療對象을

個人에서 家族으로, 精神內的 領域에서 體系(system)領域으로 옮긴 家族治療의 接近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金鍾玉, 1985 : 368).

家族問題에 대한 專門的인 介入方法으로써 家族治療는, 가족문제를 보는 視角에 따라 각기 다른 實踐方向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分類하면 Ackerman, Boszormenyi-Nag, Framo의 精神力動的모델, Haley, Palo Alto Group의 戰略的 모델, Liberman, Patterson의 社會行動變化모델, Minuchin, Montalvo의 構造的 모델, Bowen의 家族體系모델, Satir, Whitaker의 經驗論모델로 나누어진다(Walsh, 1982 : 26-27).

이와 같은 여러가지 家族治療理論들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벌써 15년 정도가 되었지만 실제로 問題家族에게 家族治療의인 접근방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最近의 일이라 할 수 있으며 臨床的인 家族治療 接近法의 보급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初期段階라고 할 수 있다(宋聖子, 1987 : 1).

따라서 家族治療理論과 家族治療모델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외국의 이론가들이 이론을 발전시킨 社會文化的 背景과 韓國의 社會文化的 背景과의 差異點, 또 양문화에 있어서 家族問題發生의 原因과 家族問題의 形態에 있어서의 差異點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일이며(金鍾玉, 1985 ; 裴光雄, 1986 ; 변귀연, 1988 ; 宋聖子, 1987 ; Foley, 1974) 이러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만이 우리나라의 問題家族에게 적합한 家族治療理論을 選別하고 修正, 補完하여

韓國的 家族治療理論의 土臺를 마련해 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家族治療理論중 어느 것이 韓國問題家族의 家族治療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見解가 각기 다르지만 현재 미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Minuchin의 構造的 家族治療理論은 체계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하위체계의 개념이 명확하고 과학적으로 논증이 용이한 까닭에(Minuchin, Baker & Roseman, 1976 : 12-38) 이 이론과 관련된 文獻研究, 社會調查研究, 事例研究 등이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많이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Minuchin의 이론이 韓國의 問題家族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이 部分的으로 입증되었으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韓國家族의 固有한 特性이 家族治療戰略에 반영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으며 또한 Minuchin의 이론에서 강조하는 家族構造의 4가지 次元 또한 文化的 特性과 관련이 많으므로(Walter, Robillard, Jing, Tseng & Geoffrey, 1983 : 454-458 ; Guler, 1991 : 121)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부분적으로 韓國家族의 病理的인 問題解決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이 이론이 실제 家族治療狀況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正常家族과 問題家族을 구분짓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韓國家族의 家族構造的인 特性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家族問題類型別로 이론의 適用可能性이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2. 研究問題

본 연구에서 설정한 具體的인 研究問題는 다음과 같다.

[研究問題 I] 韓國家族의 家族問題類型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研究問題 II] Minuchin의 家族評價基準(境界線, 提携, 權力, 適應)에 의거하여 볼 때 韓國의 正常家族의 家族構造는 어떠한가?

[研究問題 III] Minuchin의 家族評價基準(境界線, 提携, 權力, 適應)에 의거하여 볼 때 韓國의 家族問題類型別 問題家族의 家族構造는 어떠한가?

[研究問題 IV] 家族問題類型別 問題家族에 대한 Minuchin의 構造的 家族治療理論의 適用可能性은 어떠한가?

3. 用語의 定義

1) 家族問題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家族問題는 치료자의 專門的인 視角에 의해 판단된 家族問題가 아니라 가족들이 臨床機關을 찾는 原因이 되는, 症狀으로 나타난 家族問題를 의미한다.

2) 家族構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家族構造의 개념은 S. Minuchin의 家族評價基準인 境界線, 提携, 權力 그리고 適應에 의해 나타나는 家族關係의 特性을 말한다.

3) 一般家族

본 연구에서는 一般家族과 正常家族을 구분하고 있는데 一般家族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 즉 正常家族은 물론 臨床機關을 찾지는 않았더라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 모두 포함된다.

4) 正常家族

一般家族을 대상으로 수정된 FACES II 설문지에 응답하게 하여 그 결과, 極端水準을 나타내는 家族을 除外한 均衡을 이루는 家族과 中間範圍의 家族을 正常家族으로 분류한다.

5) 問題家族

본 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問題治療를 목적으로 自發的, 非自發的으로 서울시에 위치한 臨床機關과 神經精神病院에서 相談이나 治療를 받고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

II. 理論的 背景

1. 韓國家族의 家族問題類型

일반적으로 家族問題란 가족생활에 관계되는 여러가지 문제로써 이것은 다시 가족에 관계되는 社會體系와의 관계를 총망라한 廣範圍한 개념과 가족내의 家族關係의인 個別的인 問題를 포함하는

狹意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劉永珠, 1987 : 284). 家族問題를 社會體系와의 關係에서 보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家族危機의 요인을 크게 3 가지로 분류한 Reuben Hill을 비롯하여 Susman, Burgess(1987 : 285 재인용), 宋聖子(1987 : 266-322), 김용구·이기숙(1976 : 30) 그리고 崔在錫(1985 : 283-477)의 분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家族問題의 성향에 대하여 社會學的인 立場에서 분류한 이러한 분류법들은 현상을 파악하는데는 유용하겠지만 臨床的인 측면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불충분하다(宋聖子, 1985 : 19).

이런 이유로 해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家族內의 家族關係의인 側面에서 家族問題를 분류한 분류법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분류법에 해당하는 예로는 家族問題를 夫婦間의 葛藤, 父母-子女間의 葛藤, 女性의 就業으로 인한 家族 葛藤으로 分類한 劉永珠(1987 : 332-360)의 분류와 家庭不和要因을 夫婦間의 葛藤, 子女問題, 妻家·親戚關係, 男便의 生活無能力, 家族圓의 精神健康, 性滿足 등으로 分類한 서울특별시 가정상담소의 분류(宋聖子, 1985 : 19) 그리고 서울특별시 가정상담소의 분류법을 근거로 家庭不和要因을 不貞, 三角關係, 性的 不滿, 더 이상 사랑못함, 酒癖, 賭博, 暴行, 遺棄, 虐待, 性格差, 價値觀差, 妻의 家出, 男便의 家出, 姑婦間의 葛藤, 親戚葛藤, 生活無能力, 浪費癖, 生活全般, 問題子女, 疑妻症, 精神健康으로 分類한 金孝南(1984 : 44)의 分類法이 있다.

이 중에서 서울시 가정상담소와 金孝南의 分類는 실제로 臨床機關의 臨床資料를 근거로 한 분류안들이어서 臨床機關을 찾는 問題家族의 家族問題를 분류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일치하는 점이 많으므로 본 연구에서 분류한 韓國家族問題類型은 주로 이 두 가지 分類方法을 근거로 하고 있다.

2. 韓國家族의 特性

1) 韓國家族의 家族意識

韓國家族의 傳統的인 家族意識은 지난 1세기동

안 많은 變化를 겪어오고 있다. 즉 서구적인 人權尊重과 男女平等의 가치관이 실제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韓國家族의 발전이 家父長制度에서 民主的인 制度로 나아가야 하는 時代的 要請이 부각된 것이다(李效再, 1988 : 44). 그렇지만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는 현재 산업화로 인한 과학기술의 발전 및 경제성장과 도시화의 영향으로 인해 一貫性이 없고 無秩序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家庭生活의 近代化는 일부에 편재되어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혼재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規範意識과 行動의 측면만 보더라도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行動의 면보다는 意識의 면이 앞서고 있어 理論的 내지 規範的인 의식면에서는 상당히 近代化되어 있지만 行動의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傳統的 내지 前近代的인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崔在錫, 1983 : 293 ; 배광웅, 1986 : 41) 기본적으로 家父長的인 내적 구조의 핵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이동원, 1989 : 6). 또한 해방 이후 급격한 都市化의 경향과 더불어 가족 단위가 核家族形態를 많이 보이고 있지만 이들 核家族도 형태상으로는 核家族形態지만 부모의 영향권이나 대가족의 連帶關係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韓國的 核家族'의 성향이 뚜렷하여(송수식, 1986 : 152) 우리나라의 核家族化現象은 서구의 현상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정현화, 1977 : 51). 이와 같은 不一致樣相의 근본적인 원인은 韓國家族의 전통적인 儒敎的 價値體系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이조 오백년에 걸쳐 儒敎的 價値體系가 우리사회를 지배하였고 이것이 지금도 우리생활의 저류에 깊은 뿌리를 박고 있어(이동식, 1989 : 109)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도 儒敎傳統, 특히 忠孝精神이 교육의 기본사상으로 제시되는 등 儒敎傳統이 오히려 우리의 전통적 미덕으로 강조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 또한 이러한 儒敎的 傳統에 강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玉先花, 1980 : 106). 이와같은 儒敎的 價値體系에 근거한 한국가족의 價値觀을 정리해 보면 크게 情意的인 家族主義와 家父長制에서의 垂直的인

家族關係로 집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먼저 전체적인 家族意識의 측면을 대표하는 情意的 家族主義에 대해서 살펴보면, 情意的인 家族主義는 가족에서 시작하여 양로원에서 끝나는 서구인의 일생과는 달리 험난한 역사속에서도 가족 집단을 중심으로 하여 결속했던 한국인의 생활방편이기도 하였다는 肯定的 측면도 있지만(가족환경연구회, 1988 : 139)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가족구성원들이 집단에의 盲目的인 同調와 個人意識의 否定, 이에 따른 被害意識이나 自虐心理등을 가지게 된 원인이기도 하므로(이홍우의 6인 1988 : 48)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근대적 가치관의 중심가치인 個人主義와 상처된다는 점과 家族集團만 최우선으로 하여 가족 이외의 다른 공동체차원에서의 협력을 沮害한다는 점에서 否定的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특히 산업화로 인한 부부중심의 소인수가족으로의 변화가 기존의 '擴大家族的 家族主義'를 閉鎖性이 강한 '核家族的 家族主義'로 바뀌게 함으로써 가족의 排他性만이 더욱 強化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현대인으로 하여금 더욱 더 家族에 執着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가족환경연구회, 1988 : 154). 따라서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傳統的인 家族主義의 美德을 現代인 個人主義와 調和시킴으로써 核家族的 閉鎖的인 家族主義, 즉 家族利己主義를 예방해 나가는 일일 것이다.

2) 韓國家族的 家族關係

韓國家族的 家族關係 측면에서의 특징은 家父長權과 이 家父長權에 의해 파생되는 父子關係, 母子關係, 夫婦關係 그리고 姑婦關係와 같은 垂直的인 家族關係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전체 가족원을 統制하고 監督하는 권리와 더불어 가족성원에 대한 扶養의 의무를 함께 가지면서 가족내의 男女, 長幼, 上下의 신분적 서열의 중심이 되어온 家父長權을 비롯하여 가계계승과 집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父系社會의 특징에 의해 가장 강력한 가족내 대인관계의 유형이 되어온 父子關係, 그리고 부자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는 문화적 특징에 의해 평등관계가 아닌 二次的 從屬關係로 머물러야 했던 夫婦關係, 이러한 부부관계의 특

성에 의해 어머니와 아들이 애정적으로 강하게 결속됨으로써 생긴 密着된 母子關係, 또한 이러한 모자관계의 특성에 의해 나타난, 부계가족내의 가장 약한 면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 姑婦關係에서 알 수 있듯이 韓國家族的 和睦은 男女 上下의 身分秩序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宋聖子, 1985 : 18) 이러한 특성은 서구사회의 夫婦平等, 夫婦中心의 가족관계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韓國家族固有의 것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대적 조류에 의해 家父長權이 상당히 약화되고 父母와 子息間,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에 意識의 不均衡이 개재하면서 親子中心의 家族關係와 夫婦中心의 家族關係 사이에 緊張과 葛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또한 오늘날의 현실이다. 家族關係上의 이러한 緊張과 葛藤은 이것이 현재적이든 잠재적이든 근대화과정에 있는 한국가족으로서는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崔在錫, 1985 : 22). 따라서 현대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타당성있는 연구의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미 변화된,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변화해 가고 있는 韓國家族的 特性을 더욱 심도있게 파악해 가야 할 必要性이 더욱 증가하는 것이다.

3. S. Minuchin의 構造的 家族治療理論

1) 家族評價基準

Minuchin이 1967년에 Montalvo, Guerny, Rosmon, Schumer와 함께 발전시킨(송성자, 1987 : 224) 構造的 家族治療理論에서 Minuchin은 家族構造란 가족구성원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조직화하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機能的要求(functional demand)이며 오늘날의 가족에게서 일어나는 逆機能的인 家族構造와 問題의 症狀은 가족내의 境界線(Boundary), 提携(Alignment), 權力(Power) 그리고 適應(Adaptation)과 關聯이 있다고 보았다(金鍾玉, 1985 : 372). 이들 構造上의 4가지 특성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볼 수 있으며 永續性을 지닌 家族體系(Family System)에서는, 특히 가족내의 인간관계의 규칙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構造的 家族治療에

서는 家族體系의 境界線, 提携, 權力 그리고 適應力이 변화하도록 치료를 가함으로써 가족구조를 개선하려고 힘쓰며 그 결과, 특정 개인의 機能障礙를 초래하지 않는 새로운 機能的 家族規則으로 대처함으로써 가족내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1) 境界線(Boundary)

하위체계의 境界線(Boundary)은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가를 규정하는 규칙(Minuchin, 1974 : 53)으로써 家族治療의 관점에서 가족의 역기능여부를 판별하는 하나의 기준은 가족의 각 개인, 각 하위체계간의 境界가 存在하는 지의 여부이다. 즉 境界는 하위체계간의 차이를 保護하는 기능을 가지며 한 하위체계는 다른 하위체계성원들과의 접촉이 허락될 정도로 境界의 融通性이 있어야(조휘일, 1984 : 346) 그 가족은 正常的인 家族機能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Minuchin(1974 : 54)은 이 境界線을 混同된 境界, 分명한 境界, 硬直된 境界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分명한 境界를 가진 가족은 正常, 또는 健全한 가족으로서 가족구성원간에 秩序가 있고 明確한 相互作用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混同된 境界를 가진 가족은 가족체계의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規則이 曖昧하여 구성원의 문제에 지나치게 關與하며 이러한 境界의 曖昧性으로 말미암아 가족구성원간의 緊張이 초래되고 混同된 境界線이 慢性的으로 持續되는 경우 긴장이 더욱 深化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混同된 境界의 개념은 가족구성원이 지나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설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Wynne(1958 : 205-220)의 擬似敵意性(Pseudomutuality)과 Bowen의 未分化된 家族自我群(Undifferentiated family egomass : Emotional fusion)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Hoffman, 1981 : 72 ; Harold, Ann & Jane, 1979). 그리고 混同된 境界를 가진 이 같은 가족과는 대조적으로 境界線이 너무 硬直되어 있어 가족구성원간의 상호관계가 잘 성립되지 않는 가족을 硬直된 家族이라 하는데 이것은 또한 Wynne(1958 : 205-220)의 擬似敵意性(Pseudohostility)과 Bowen의 精緒的 遮斷(Emotional Cutoff)개념과 일치한다(Hoffman, 1981 :

72).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려면 우선 체계간의 境界가 分明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境界線의 개념은 Minuchin의 構造的 家族治療에서 제시하는 4가지 개념 중의 하나인 適應과 더불어 이 이론의 核心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2) 提携(Alignment)

提携라고 하는 것은 가족상호작용의 과정에서 가족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 結托關係, 또는 相反關係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Minuchin(1974 : 101-105)은 이러한 유형의 구조를 硬直된 三人群(rigid triad)이라고 표현하였다. Minuchin이 말하는 硬直된 三人群, 즉 提携는 주로 安定的 結托(Stable Coalition), 三角關係(Triangulation), 迂回的 結托(Deturing Coalition)을 의미한다(Gurman & David, Kniskern, 1981 : 313-314). 먼저 安定的 結托은 한 가족성원이 다른 가족성원들과 合流(Jointing)함으로써 행동양식이 점점 支配的이 되고 관계가 融通性이 없는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을 말하며 三角關係는 대항하고 있는 두 사람이 각각 동일한 제3의 사람과 合流하려 하고 제3의 사람이 이에 응하는 提携類型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迂回的 結托은 문제의 원인으로 다른 가족성원들을 指摘하고 攻擊하거나 걱정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문제의 근본원인에서 回避하려고 하는 提携類型을 말한다.

가족구성원들이 結托關係를 갖느냐 아니면 正反對의 관계를 갖느냐 하는 문제는 가족이 생활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문제로써(박영숙, 1987 : 20) 잘 기능하는 가족성원들의 경우는 문제에 따라서 提携를 融通性있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家族治療家の 입장에서 볼 때 提携의 組合이 가족상황에 따라 融通性있게 변한다는 사실은 그 家族構造가 매우 機能的임을 반영하는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3) 權力(Power)

權力이라 함은 개개의 가족구성원이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하여 타인에게 미치는 影響力을 말하며

가족구조상으로 본 權力은 가족이 기능을 다하기 위한 起動力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서울백제병원, 1987 : 16). 특히 개인은 다양한 하위체계안에서 각기 다른 權力을 가지게 되는데 권력행사가 기능적이기 위해서는 明白한 境界가 유지되는 범위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Minuchin, 1974 : 52-53). 權力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家族構造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와의 관계에서 權力을 가지고 있고 무엇에 관한 勢力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宋聖子, 1987 : 231) Blood와 Wolfe(1960 : 20)에 따르면 權力(Power)이란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각종의 의사결정능력속에 나타나며 특히 權力背景, 權力過程, 權力結果 중에서 權力背景과 權力過程은 權力結果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가 되고 실제적인 權力은 權力結果 즉 실제적인 의사결정행위에서 나타난다(윤현봉, 1985 : 28)고 한다. 그러므로 가족내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意思決定行爲만을 測定하더라도 實際的인 權力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4) 適應(Adaptation)

가족은 그 구성원과 하위체계의 발달상의 변화에 따른 內的壓力과 가족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회제도에 적응하도록 요구하는데서 오는 外的壓力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는다(Minuchin, 1974 : 60). 이와 같이 가족체계에 가해지는 Stress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차원에서 발생하게 된다(Minuchin, 1974 : 61-65). 첫째는 한 家族構成員이 家族外部勢力과의 접촉에서 Stress를 수반하는 경우로써 가장의 장기간의 실직, 자녀의 입시낙방, 한 가족원의 불의의 사고 등이 이 경우이다. 이와 같이 한 가족성원이 외부사건의 영향을 받아 긴장이 발생하였을 때 다른 가족성원들은 가족구조와 상호관계에 再適應해야만이 家族機能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家族全體가 家族外部의 勢力과의 접촉에서 Stress를 수반하는 경우로써 경제적 불황, 사업의 실패, 빈곤, 인종차별 등과 같은 예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외부세력의 영향으로 가족의 社會的地位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가족들은 대외·대내적인

관계에 再適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째는 家族의 發達段階上的 過渡期에 나타나는 Stress로써, 일반적으로 家族生活週期 중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전환할 때마다 전체가족과 각 성원들의 위치, 역할, 기대, 기능이 변화하게 되어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모든 가족구성원들에게 成長의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이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過渡期的問題(transitional problem)가 이후의 발달단계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Minuchin(1974 : 63)은 자녀가 靑少年期로 들어가는 時期에 가장 일반적으로 이러한 發達上的 Stress가 흔히 발생하고 촉진된다고 보았다. 네번째로 Stress가 유발되는 차원은 特殊한 問題로 Stress가 발생되는 경우이다. 즉 가족구성원 중에 精神肢體者나 身體不具者가 있을 경우, 또는 한 가족성원이 심한 疾病을 앓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같은 한 가족성원의 문제가 심각하고 오래 계속될 경우 그 가족성원의 기능, 역할, 권력이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위임되고 재분배되며 각 가족원들이 새로이 부여된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가족체계내의 再適應이 필요한 것이다.

2) 韓國臨床家族에의 適用性에 대한 先行研究
Minuchin의 家族治療理論의 한국에서의 臨床的 適用可能性에 대한 견해는 적용가능성을 肯定的으로 보는 견해와 否定的으로 보는 견해로 크게 나뉘어지고 있다. 肯定的인 견해로는 構造的 家族治療理論이 전형적인 美國的 사고(예를 들면 자연을 극복하려는 정복적인 자연관)보다는 韓國的 사고(예를 들면 자연에 순응하고 수용하려는 조화를 중시하는 자연관)에 입각하므로 이 治療的方法의 도입이 韓國的인 家族治療의 발전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는 견해(金鍾玉, 1985 : 368)가 있고 이와 대별되는 否定的인 견해로는, 韓國家族은 가족구조내에서 階層과 序列이 뚜렷하고 階層과 性에 따르는 役割과 責任이 가족을 둘러싼 각종 規範에 의해 정해져 위계질서와 하위체계의 한계가 分明한 것은 대부분의 韓國家族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으므로 韓國家族에서 하위체계와 역

할의 불분명함이 가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견해(宋聖子, 1985: 30)가 있다. 그런데 Minuchin의 이론을 韓國의 問題家族에게 적용함으로써 그 適用可能性을 타진해 온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의 결과는 비록 部分的인긴 하나 이 이론이 韓國의 問題家族에게 효과가 있음을 立證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의 예로 金孝南(1984)은 서울시 가정상담소에서 취급한 100사례의 問題家族에 S. Minuchin의 診斷基準을 적용하여 사례연구를 하였고 金孝淳(1989)은 정신병원입원환자 중에서 소아문제, 청소년문제, 부부문제를 가진 5사례에 Minuchin의 家族治療理論을 적용하였으며 그 외 장애가족을 대상으로 한 裴光雄(1986)의 연구, 정신분열증환자의 사례에 이 이론을 적용시킨 崔松植(1986)의 연구, 정서장애아동의 사례연구를 통해 이론을 적용시킨 박경애(1986)의 연구, 정서장애아동과 정상아동가족을 Minuchin의 이론체계내에서 비교, 분석한 변귀연(1988)의 연구, 그리고 재가출아동의 치료에 Minuchin이론의 適用可能性을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한 손옥주(1984)의 연구 등이 Minuchin의 構造的 家族治療理論을 한국가족에 적용해 온 대표적인 연구들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장애가족, 정서장애아동가족, 재가출아동가족 등 特定問題類型에 초점을 맞추면서 실시되어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夫婦간의 葛藤問題나 姑婦關係上的 問題 등을 構造的 家族治療의 시각에서 전문적으로 다룬 연구가 드물다는 점과, 또한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이 Minuchin의 이론을 한국가족에 적용함에 있어 실용성과 효용성이 있음을 입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분적으로 적용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韓國의 家族構造 및 그것을 뒷받침하는 意識構造와 관련하여 Minuchin의 이론에 대한 韓國的인 照明이 필요함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1) 李光圭(1985: 18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姑婦간의 葛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同居하는 3대가족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分家하여 따로 사는 次男 以下の 아들의 경우에도 姑婦問題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한다.

III. 研究方法

1. 測定道具

본 연구에서 사용한 測定道具는 크게 3가지 유형의 설문지인데 一般家族에서 正常家族을 가려내기 위해 사용한 수정된 FACES II 설문지, 그리고 問題家族과 正常家族의 家族構造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새로이 작성하여 사용한 問題家族用 설문지와 正常家族用 설문지가 바로 그것이다.

수정된 FACES II 설문지는 유순덕(1987)이 한국의 臨床家族과 一般家族의 家族結束力과 適應力을 측정하기 위해 Olson, Bell과 Porter가 1981년에 제작한 50문항으로 구성된 FACES II를 한국실정에 맞게 20문항으로 수정한 것이다. 문항의 응답방식은 5점 척도이며 각 사례가 취득가능한 전체점수의 범위는 20~100점이다. 問題家族用 설문지는 응답자 및 그 가족의 일반사항에 대한 3문항과 가족문제에 관한 문항 그리고 Minuchin의 家族評價基準인 境界線, 提携, 權力, 適應문항으로 구성되었다. 正常家族用 설문지는 응답자와 그 가족의 일반사항에 대한 3문항, 境界線, 提携, 權力, 適應측정문항, 權力順位측정문항 그리고 수정된 FACES II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境界線, 提携, 適應측정항목은 각각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단계로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境界線의 경우는 1점이나 5점으로 갈수록, 提携는 5점으로 갈수록 逆機能의이라 할 수 있고 適應의 경우는 점수가 커질수록(5점으로 갈수록) 適應力이 좋은 純機能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며 權力측정항목은 '男便', '婦人', '夫婦共同', '子女', '기타'의 5가지 응답범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姑婦關係에 대한 提携측정항목의 경우는 姑婦가 동거하는 경우는 물론 동거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시켰다¹⁾.

調査道具에 대한 妥當度는 전공자 4명에 의한 顔面妥當度 검증과정을 거쳐 입증이 되었고 信賴度檢證과 문항이 적합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1990년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8일동안에 걸쳐 4개

區 30명의 主婦를 대상으로 豫備調査를 실시하여 境界線(0.7317), 提携(0.728), 適應(0.7829) 측정 항목의 文항 상호간의 內的一貫性을 나타내는 표준화된 알파(Standardized Alpha)값을 구하였다. 權力 측정 항목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고 이미 信賴度를 검증한 문항들이므로 별도의 신뢰도 검증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2. 標本抽出 및 資料蒐集

본 연구에서는 正常家族과 問題家族을 표집하고자 하였다. 正常家族은 一般家族으로 부터 추출하였는데 一般家族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의 就學期 子女가 있는 가족 전체를 母集團으로 하여²⁾ 서울특별시의 10개 區에서 比確率的인 有意標集(Purposive Sampling)으로 500가족을 표집하였다. 一般家族을 대상한 調査는 1990년 7월 9일에서 7월 20일까지 실시되었는데 총 500부를 배부하여 397부(회수율 79.4%)가 회수되었으나 기재내용이 아주 부실하거나 분석대상으로 부적합한 3사례를 제외한 394부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에서 다시 FACES II에 의해 355부의 正常家族事例를 추출하여 이것을 실제 분석자료로 삼았다. FACES II 설문지의 응답에 대한 자료는 一般家族들의 結束力 10문항, 適應力 10문항에 대한 平均과 標準偏差를 구하여 이것을 基準으로 結束力과 適應力の 각 차원을 4가지 수준으로 나누는 基準點을 설정하였다³⁾. 그리하여 表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極端에 속하는 家族을 제외한 均衡을 이루는 家族과 中間範圍의 家族이 포함된 正常家族 355사례가 抽出되었다.

- 2) 母集團을 만 6세 이상의 就學期 子女가 있는 家族으로 限定시킨 이유는 夫婦와 그 子女間에 나타나는 提携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 3) Olson et al(1982)은 FACES II의 전국적 자료를 분석할 때 平均±SD를 기준 [최하위점수 * (평균-SD) * 평균 * (평균+SD) * 최상위점수]으로 4집단을 구분하였다.
- 4) 加重值 산출방법은 각 權力문항의 平均順位를 구한 뒤 平均順位가 6.5미만이면 5점의 加重值를, 6.5이상~8.5미만이면 4점을, 8.5이상~12.5미만이면 3점을, 12.5이상~14.5미만이면 2점을, 14.5 이상이면 1점의 加重值를 주었다.

그리고 問題家族의 경우는 1990년 7월 9일에서 8월 3일까지 서울특별시 가정상담소 3개소와 신경정신병원 3개소에서 相談이나 治療를 받고 있는 가족을 比確率的인 有意標集(purposive sampling)으로 선정하여 問題家族用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였다. 그리고 正常家族과 問題家族 모두 그 가족의 主婦(擴大家族의 경우는 며느리)를 실제 조사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問題家族 中에서 主婦가 I.P.(Identified Patient)인 경우는 그 男便을 실제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實際調査가 실시되었는데 총 100부를 배부하여 98부(회수율 98%)를 회수, 이것을 본 연구의 分析資料로 사용하였다.

3. 資料分析方法

一般家族을 대상으로 회수한 자료 394사례와 問題家族 98사례는 coding과정을 거친 후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C+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資料分析方法에 있어서;

1) 조사대상자와 그 가족의 一般的인 事項은 頻度와 百分率을 통해 파악을 하였다.

2) 家族問題의 類型分類는 서울시 가정상담소의 분류법(宋聖子, 1985: 19)과 이것을 근거로 한 金孝南(1984: 44)의 분류법을 참고로 하고, 또한 표집된 問題家族의 家族問題의 內容 및 頻度를 보충하여 分類하였다.

3) 正常家族의 家族構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一般家族(394사례)에서 추출한 正常家族(355사례)의 境界線, 提携, 適應點數의 平均과 權力類型의 빈도를 구하였고 問題家族의 경우는 夫婦問題家族, 子女問題家族, 姑婦問題家族別로 境界線, 提携, 適應點數의 平均과 權力類型의 빈도를 구하였다. 특히 權力的 경우는 權力測定에 관한 선행연구들(임정희, 1982: 19; 崔在錫, 1985: 136; Safilios Rothschild, 1970: 543, 1976: 360)이 모든 意思決定事項들을 동일한 비중으로 취급할 경우 실질적인 權力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意思決定項目別 比重이 고려되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서 연구방법상의 이러한 문제점을

표 3-1. Olsen의 Circumplex Model에 의한 正常家族 抽出結果

(N=394)

類 度 가로百分率 세로百分率 全體百分率		結 束 力				合 計
		過剩分離 (10~32)	分 離 (33~38)	連 結 (39~44)	密 着 (45~50)	
適 應 力	混 同 (41~50)	2	5	22	8	37
		5.4	3.5	59.5	21.6	100
		3.4	3.9	12.2	29.6	-
		.5	1.3	5.6	2.0	9.4
	融通的 (36~40)	5	55	93	16	169
		3.0	32.5	55.0	9.5	100
		8.6	42.6	51.7	59.3	-
		1.3	14.0	23.6	4.1	43
	構造的 (31~35)	22	61	53	3	139
		15.8	43.9	38.1	2.2	100
		37.9	47.3	29.4	11.1	-
		5.6	15.5	13.5	.8	35.4
硬 直 (10~30)	29	8	12	-	49	
	59.2	6.3	24.5	-	100	
	50.0	6.2	6.7	-	-	
	7.4	2.0	3.0	-	12.4	
合 計		58	129	180	27	394
		-	-	-	-	-
		100	100	100	100	-
		14.8	32.8	45.7	6.9	100

* 平均 : 結束力-38.2 * 標準偏差 : 結束力-5.1
 適應力-35.3 適應力-4.3

▨ 均衡을 이루는 家族(Balanced Family) □ 正常家族
 ▩ 中間範圍의 家族(Mid-Range Family) □ 正常家族
 ▧ 極端水準의 家族(Extreme Family)

줄여보고자 20가지 意思決定項目別로 加重值⁴⁾를 두었다. 그리고 각 사례별로 權力類型의 加重值의 합을 구하여 男優位型, 婦人優位型, 夫婦共同型, 子女優位型, 媳母優位型으로 나눈 뒤 加重值의 합이 가장 큰 유형을 그 사례의 權力類型으로 하고 각유형별 총빈도를 구하였는데 분석결과, 子女優位型과 媳母優位型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제외시켰다.

4) 適用可能性은 問題家族과 正常家族間의 家族構造의 차이를 근거로 논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3유형의 問題家族의 사례수(夫婦問題 53사

례, 子女問題 25사례, 姑婦問題 20사례)와 동일한 사례수를 正常家族集團에서 무선표집하여 각 집단별로 境界線, 提携, 適應概念은 t-test를, 權力概念은 χ^2 -test를 적용하였으며 有意度水準은 $p < 0.1$ 이다.

IV. 調查結果 및 分析

1. 조사대상자의 社會人口學的 特性

1) 正常家族의 社會人口學的 特性

正常家族 조사대상자들의 社會人口學的 特性은

표 4-1. 正常家族 調查對象者의 社會人口學的 特性

社會人口學的的特性	範 疇	性 別			
		婦 人		男 便	
		頻 度(N)	百分率(%)	頻 度(N)	百分率(%)
年 齡	20代	5	1.4	2	0.6
	30代	197	55.5	111	31.3
	40代	128	36.1	176	49.6
	50代	24	6.8	58	16.3
	60代	1	0.3	8	2.3
教 育 水 準	國卒 以下	36	10.2	13	3.7
	中 卒	67	18.9	53	14.9
	高 卒	181	51.0	107	30.1
	大 卒	69	19.4	164	46.2
	大學院以上	2	0.6	18	5.1
職 業	主 婦	284	80.0	0	0
	單純勤勞職	11	3.1	40	11.2
	技術職	4	1.1	26	7.3
	自營業主	34	9.6	108	30.4
	事務職	21	5.9	109	30.7
	管理職	0	0	62	17.5
	專門職	1	0.3	10	2.8
	計	355	100.0	355	100.0
		頻 度(N)		百分率(%)	
子 女 數	1~2 名	246		69.3	
	3~4 名	104		29.3	
	5名 以上	5		1.4	
· 母同 居與否	同 居	63		17.7	
	非同居	292		82.3	
家 族 總所得	20만원未滿	5		1.4	
	20~59 만원	93		26.2	
	60~99 만원	156		44.0	
	100만원以上	101		28.5	
結 婚 持 續 年 數	13年 未滿	142		40.0	
	14~20年	140		39.4	
	21~30年	65		18.3	
	31年以上	8		2.3	
	計	355		100.0	

表 4-1과 같은데 먼저 年齡別분포를 보면 부인은 30대(55.5%), 남편은 40대(49.6%)가 주를 이루고 教育水準의 분포에서 부인의 경우는 고졸이 51.0%, 남편의 경우는 대졸(46.2%)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職業분포에서는 부인의 80%가 주부이고 남편의 경우는 사무직(30.7%)과 자영업주

(30.4%)가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子女數의 분포에서는 1~2명의 자녀를 가진 가족이 246가족으로 전체의 69.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比率을 보였고 媳母와의 同居여부에서는 媳母와 同居하는 가족은 전체의 17.7%이며 同居하지않는 가족이 82.3%로 주를 이루었으며 家族總所得의 분포에

표 4-2. 問題家族 調査對象者の 社會人口學的 特性

社會人口學的的特性	範 疇	性 別			
		婦 人		男 性	
		類 度(N)	百分率(%)	類 度(N)	百分率(%)
年 齡	20代	7	7.1	0	0
	30代	47	48.0	38	38.8
	40代	36	36.7	38	38.8
	50代	8	8.2	22	22.4
教 育 水 準	國卒 以下	0	0	0	0
	中 卒	13	13.3	5	5.1
	高 卒	61	62.2	36	36.7
	大 卒	24	24.5	55	56.1
	大學院以上	0	0	2	2.0
職 業	主 婦	87	88.8	0	0
	單純勤勞職	0	0	0	0
	技術職	0	0	6	6.1
	自營業主	6	6.1	30	30.6
	事務職	5	5.1	18	18.3
	管理職	0	0	45	45.9
	專門職	0	0	4	4.1
	計	98	100.0	98	100.0
子女數	1~2 名	類 度(N)		百分率(%)	
	3~4 名	79		80.6	
	5名 以上	15		15.3	
媳母同 居與否	同 居	4		4.1	
	非同居	42		42.9	
家 族 總所得	20만원未滿	56		57.1	
	20~59 만원	0		0	
	60~99 만원	28		28.6	
	100만원以上	29		29.6	
結 婚 持 續 年 數	13年 未滿	41		41.8	
	14~20年	46		47.0	
	21~30年	36		36.7	
	31年以上	14		14.3	
	計	2		2.0	
計	98		100.0		

서는 60만원~99만원사이(44.0%)가 가장 많고 夫婦의 結婚持續年數의 경우는 13년 미만인 40.0%, 14년~20년 사이가 39.4%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2) 問題家族의 社會人口學的 特性

問題家族에서 나타난 조사대상자의 社會人口學

的인 특성은 表 4-2와 같은데 먼저 年齡別分포에서 부인은 30대(48.0%), 남편은 正常家族과는 달리 30대와 40대의 비율이 아주 비슷하게 나타났고 教育水準의 분포에서 부인의 경우는 고졸(62.2%)이, 남편의 경우는 대졸(56.1%)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職業分포에서 부인의 경우는 주부(88.8%)가 正常家族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남편의 경우는 正常家族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 관리직(45.9%)의 비중이 더욱 높게 나타난 점이 하나의 특징이며 子女數의 분포에서는 1~2명의 자녀를 가진 비율이 가장 많고 媿母와의 同居여부에서는 동거비율이 42.9%로 나타나 正常家族의 17.7%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家族總所得에서는 100만원 이상인 가족이 41.8%로 주를 이루었으며 夫婦의 結婚持續年數에서는 13년 미만(47.0%)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2. 家族問題의 類型分類

家族問題의 類型分類는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분류방법중 서울시 가정상담소의 분류법과 이것을 근거로 한 김효남의 분류방법을 기초로 하고 또한, 본 연구에서 표집한 問題家族의 家族問題의 內容을 보충하여 크게 男便問題, 婦人問題, 夫婦問題, 子女問題, 姑婦問題, 親戚問題로 분류하였는데 이 중에서 男便問題와 婦人問題는 결과적으로 夫婦間의 葛藤으로 歸着이 되어 實質的으로 夫婦問題와 뚜렷이 구별되지 않음으로 해서 본 연구에서는 男便問題와 婦人問題를 夫婦問題에 포함시켰으며 實際分析에서는 實態調査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난 夫婦問題(53사례 : 54.08%), 子女問題(25사례 : 25.5%), 姑婦問題(20사례 : 20.4%)를 韓國家族의 家族問題類型으로 보았다.

3. 正常家族의 家族構造的 特性

1) 境界線(Boundary)

表 4-3에 나타난 바와같이 본 연구에서 나타난 正常家族의 家族構造的 特性 중에서 먼저 境界線 측면에서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境界線의 측면에서 볼 때 가족관계에서 明確한 境界가 형성되어있지 않고 다소 混同된(diffuse)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一般兒童家

族의 混同程度가 3.788로 나타난 변귀연(1988)의 연구결과와 一致하는 것이다. 이로써 미루어 볼 때 대체로 韓國家族은 家族體系內에서의 相互作用에 참여하는 規則이 다소 曖昧하고 구성원의 문제에 다른 가족원들이 많이 關與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Wynne(1958 : 205)의 擬似相互性(Pseudomutuality)이나 Bowen의 未分化된 家族自我群(Undifferentiated family egomass : Emotional fusion)의 특성이 다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正常家族의 混同된 경향은 明確한 境界(clear boundary)를 正常家族의 기준으로 삼고있는 外國의 상황(Minuchin, 1974 : 54)과는 구분되는 韓國家族固有의 家族特性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提 携(Alignment)

提携는 다른 평가기준들에 비해서 다소 낮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Minuchin이 제시한 구체적인 提携形態인 安定的 結托(Stable Coalition), 三角關係(Triangulation), 迂回的 結托(Detouring Coalition)과 같은 硬直된 三人群(rigid triad)은 우리나라의 正常家族들에게서는 많이 찾아 볼 수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이러한 正常家族의 기능적인 提携특성은 또한 가족내에서 提携의 순열조합이 融通性있게 변화할 때 그 가족의 家族構造를 機能的이라고 보는(박영숙, 1987 : 20) 外國의 경우와 거의 一致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과거 우리나라의 傳統的인 母子關係나 姑婦關係의 특수성에 의해 가족관계에서 독특한 提携形態가 있으며 그 정도도 심각하지만 이처럼 提携點數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와 같은 傳統的인 母子關係와 姑婦關係의 성격이 오늘날 상당히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夫婦關係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核家族化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또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의 엄격한 主從·上下關係가 많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시어머니의 權力이 약화됨으로써 가족내의 提携形態가 이전처럼 固定的이지 않고 여러가지 狀況에 맞는 적절한 協力關係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표 4-3. 正常家族의 境界線, 提携, 權力

評價基準	Mean	SD	N
境界線	3.73	0.595	355
提 携	2.08	0.759	355
適 應	3.22	0.458	355

變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適 應(Adaptation)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 나타난 正常家族의 適應力은 평균 3.22로써 Stress에 대한 適應力이 중간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일반아동가족의 適應力이 평균 3.41로 나타난 변귀연(1988)의 연구와 適應力의 中間水準에 해당되는 '構造的'(37.3%), '融通的'(32.9%)인 適應類型을 가진 가족이 높은 비율을 보인 유순덕(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또한 가족내외적인 요구에 반응하면서 가족의 영속성을 유지, 성장해나가는 것을 正常家族의 適應特性(Minuchin, 1974 : 60)으로 보는 외국의 상황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韓國家族은 가족체계에 가해지는 Stress에 效率的으로 대응하여 적절하게 家族內 位置를 變化시키면서 성장해 가는 流動性이 中間정도라고 볼 수 있다.

4) 權 力(Power)

意思決定重要度順位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權力을 측정된 결과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夫婦共同型 의사결정(68.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韓國家族은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시의 狀況에 따라 權力의 主導權者가 바뀌거나, 또는 夫婦간의 權力의 相互交換이 가능한, 融通性이 있는 權力構造를 가지는 성향(Rollins & Bahr, 1976 : 336)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이 婦人優位型(19.9%), 男便優位型(10.9%)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增田光吉(1960 : 재인용)이 일본의 Kobe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 婦人優位型(5%)이 男便優位型(3%)보다 높게 나타났던 결과와 일치하며 서울시와 대전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했던 박주희(1985)의 연구에서 婦人優位型과 男便優位型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결과와도 다소 일치하지만 그 외의 權力에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 一致型과 自律型에 이어 男便優位型이 妻優位型보다도 높게 나타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表 4-4. 正常家族의 權力類型分布

權力分布	빈 도(N)	백분율(%)
男便優位型	39	10.9
婦人優位型	71	19.9
夫婦共同型	245	68.6
子女優位型	0	0
母優位型	2	0.6
合 計	357	100.0

** 正常家族의 총빈도가 2사례 증가한 것은 두 가족에서 權力점수와 빈도가 같은 유형이 둘씩 나타나 이 각각을 사례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간에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문항별중요도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두었고 부부외의 자녀나 기타 가족원들의 家庭內 權力比重까지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解釋할 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여성의 지위가 과거의 從屬的인 지위로부터 男性과 對等한 지위로 바뀌었으며 이들이 獨立的인 經濟活動을 하는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내에서의 主要家事에 대한 影響力도 증대되어 남성에 대한 相對的인 勢力이 커졌다(韓南濟, 1984 : 47)는 견해와 같이 민주화와 현대화의 기운이 가정에도 영향을 주어 가정내의사결정사항에 대한 주부의 權力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번째로는 비록 본 연구의 분석결과, 婦人優位型의 비율이 男便優位型에 비해 높게 나타나 여성이 意思決定의 中心으로 보이긴 하지만 남성은 그가 원할때 되돌려 받을 權利를 지닌 채 이러한 權力을 양보하고 있으므로 一常的인 主導的 役割과 否定的 權力, 즉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權力은 구분되어야 한다(Goode, 1965 : 75)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가지의 사회적 상황과 가정적 요인에 의해 비록 表面的으로는 婦人優位型의 비율이 높긴 하지만 이것은 여성의 絕對的인 權力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성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부정되고 통제받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4. 家族問題類型別 問題家族의 家族構造的 特性

1) 夫婦問題家族의 家族構造的 特性

夫婦問題家族의 가족평가기준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表 4-5와 같이 나타났는데 그 특징을 요약하면, 우선 境界線의 측면에서 夫婦關係에서 문제가 있는 가족들의 하위체계간에는 混同된 경향이 다소 있긴 하나 대체적으로는 明確한 境界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처럼 夫婦問題家族이 明確한 境界의 특성을 보이는 것은 明確한 境界線이 韓國家族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니며 오히려 問題家族에서 이 특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提携의 측면을 보면 夫婦問題家族의 提携점수는 중간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곧 安定的 結托이나 迂回的 結托, 三角關係와 같은 提携는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不適應樣相임을 나타내며 이 때 주로 시어머니나 기타 가족원이 남편이나 부인의 제후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適應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適應力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權力의 측면을 보면 (表 4-6) 夫婦共同型이 가장 큰 비율을 보이긴 하였지만 婦人優位型(15.1%)에 비해 男便優位型(24.5%)인 가족이 월등히 많이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미루어 볼 때 현대사회로 오면서

表 4-5. 夫婦問題家族의 境界線, 提携, 適應

評價基準	Mean	SD	N*
境界線	3.32	0.756	53
提携	2.90	0.909	53
適應	3.18	0.441	53

* 전체(98사례)의 54.08%

表 4-6. 夫婦問題家族의 權力類型分布

權力分布	빈도(N)	백분율(%)
男便優位型	13	24.5
婦人優位型	8	15.1
夫婦共同型	32	60.4
子女優位型	0	0
·母優位型	0	0
合計	53	100.0

가정내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부인의 權力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夫婦問題家族의 경우는 부인의 남편에 대한 상대적인 權力이 正常家族에 비해서는 낮다고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비록 正常家族에서는 부인의 權力 중 상당부분이 남편에 의해 부정되고 통제될 수 있는 表面的인 權力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夫婦問題家族의 경우는 이러한 表面的인 權力마저 부인에게 移讓된 정도가 正常家族에 비해서 낮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夫婦問題家族의 權力측면의 특징은 正常家族에 비해서 男便優位型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으로써 이는 곧 부분적으로 가정내에서 남편의 權力이 클수록 이것이 夫婦葛藤을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2) 子女問題家族의 家族構造的 特性

먼저 境界線의 경우를 보면 正常家族의 수준과 비슷한 混同된 傾向을 나타내고 있으며 提携는 3.53으로 다소 높은 점수를 보여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子女問題家族에서 提携의 성향이 이렇듯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내에 子女問題가 있는 경우 부모가 아이를 서로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三角關係(Triangulation)와 부부싸움의 주원인을 아이문제로 돌리는 迂回的 結托(Detouring Coalition) 그리고 자녀가 한쪽 부모의 편을 들면서 다른 한쪽 부모에게 대항하는 安定的 結托(Stable Coalition)의 傾向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子女問題家族의 適應力은 평균 3.28로 대체적으로 stress에 대한 適應力이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子女問題家族의 權力의 측면(表 4-8)에서의 특징으로는 夫婦共同型(88.0%)에 이어 男便優位型(12.0%)이 높게 나타나 夫婦問題家族과 비슷한 傾向을 보이고 있으나 이 夫婦問題家族의 경우와

표 4-7. 子女問題家族의 境界線, 提携, 適應

評價基準	Mean	SD	N*
境界線	3.73	0.633	25
提携	3.53	0.818	25
適應	3.28	0.592	25

* 전체(98사례)의 25.5%

表 4-8. 子女問題家族의 權力類型分布

權力分布	빈 도(N)	백분율(%)
男便優位型	3	12.0
婦人優位型	0	0
夫婦共同型	22	88.0
子女優位型	0	0
·母優位型	0	0
合 計	25	100.0

는 달리 婦人優位型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夫婦共同型의 비율이 88%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생활전반에 걸쳐 남편, 또는 아버지의 權力이 다른 가족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경우 이것은 새로운 民主的 價値觀을 받아들이며 성장하는 子女世代와의 葛藤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며 또한 夫婦가 均等한 權力을 가진 가정에서도 子女問題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겠다.

3) 姑婦問題家族의 家族構造的 特性

먼저 境界線의 측면을 살펴보면 表 4-9에 나타난 바와 같이 姑婦問題家族은 다소 混同된 傾向(3.93)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며 提携점수는 3.43으로 나타나 다소의 提携양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姑婦間에 葛藤이 있는 가족의 경우는 남편을 사이에 두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에 여러 가지의 提携樣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適應점수는 3.35로 나타나 正常家族이나 기타 夫婦問題家族, 子女問題家族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適應力을 보여주고 있다. 權力에서는 婦人優位型(40%)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男便優位型(5%)의 비율은 아주 낮게 나타났다. 正常家族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같은 결과는 부인에 비해 남편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거나 남편이 부인에게 이양한 表面的 權力이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큰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이로써 미루어 볼 때 姑婦間의 葛藤은 다른 문제 가족유형과는 달리 남편의 권력이 약하거나 부인에게 移讓된 權力이 강한 가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가정에서 姑婦葛藤이 생겼을 때 傳統的으로는 시어

表 4-9. 姑婦問題家族의 境界線, 提携, 適應

評價基準	Mean	SD	N*
境界線	3.93	0.643	20
提 携	3.43	0.852	20
適 應	3.35	0.308	20

* 전체(98사례)의 20.4%

表 4-10. 姑婦問題家族의 權力類型分布

權力分布	빈 도(N)	백분율(%)
男便優位型	1	5.0
婦人優位型	8	40.0
夫婦共同型	11	55.0
子女優位型	0	0
·母優位型	0	0
合 計	20	100.0

머니가 加害者, 또는 虐待하는 者의 입장이었고 며느리는 被害者, 또는 虐待받는 者(윤유경, 1986 : 11)의 입장이었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러한 기존의 패턴이 상당히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表 4-10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姑婦問題가 있는 가족내에서는 부인, 즉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비해 優位의 權力을 차지하는 비율은 40%로 높게 나타났는데 비해 시어머니優位型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것이 오늘날 시어머니의 權力弱화樣相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다.

5. 韓國問題家族에 대한 S. Minuchin의 構造的 家族治療理論의 適用可能性

1) 夫婦問題家族에 대한 理論의 適用可能性

表 4-1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境界線측면에서 夫婦問題家族과 正常家族 1간에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提携측면에서는 이 두 집단간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適應측면에서는 $p < .10$ 水準에서 두 集團間에 有意味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權力측면에서의 두 집단간의 차이를 χ^2 -test한 결과는 表 4-12에 제시되어 있는데 表에서 알 수 있듯이 權力측면에서 夫婦問題家族과 正常家族 1간에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4-11. 各 集團의 平均 및 t-test 結果

評價基準	夫婦問題家族 (N=53)		正常家族 I (N=53)		t-value
	M	S.D	M	S.D	
境界線	3.32	0.759	3.70	0.602	2.79***
提 携	2.90	0.909	2.07	0.831	-4.85****
適 應	3.13	0.441	3.07	0.482	-0.79

*** p<.01 **** p<.001

表 4-12. 各 集團의 權力分布 및 χ^2 -test 結果

權力類型	夫婦問題家族 (N=53)		正常家族 I (N=53)		Residual
	빈 도(N)	백분율(%)	빈 도(N)	백분율(%)	
男便優位型	13	24.5	6	11.3	7
婦人優位型	8	15.1	13	24.5	-5
夫婦共同型	32	60.4	34	64.2	-2
合 計	53	100.0	53	100.0	
chi-square					D.F.
10.207 ***					2

*** p<.01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Minuchin의 構造的 家族治療理論을 실제로 적용시켜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임상가족을 평가, 치료하고자 할 때 경계선, 제휴, 권력은 그 가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지만 適應의 경우는 夫婦問題家族의 適應점수가 正常家族 I의 適應점수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평가의 기준으로 유용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夫婦問題家族의 경우는 Minuchin이 제시한 4가지의 家族評價基準 중에서 境界線, 提携, 權力的 3가지는 效率性이 입증되었으므로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가족에 대한 Minuchin의 構造的 家族治療理論의 適用可能性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에 덧붙여 適應측면에 대한 理論的인 修正과 實質的인 補充研究가 병행된다면 부부간의 갈등을 다루는 실제 임상상황에서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子女問題家族에 대한 理論의 適用可能性

우선 適應측면에서 子女問題家族과 正常家族 II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境界線과 提携측면에서는 夫婦問題家族과 正常家

族 I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각 p<.01, p<.001 수준에서 두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權力측면에서는 表 4-1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子女問題家族과 正常家族 II 집단간에는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子女問題를 가진 가족을 치료함에 있어 Minuchin의 構造的 家族治療理論을 적용할 경우 境界線과 提携와 權力측면은 유용한 家族評價基準이 될 수 있지만 適應은 臨床狀況에서 子女問題家族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效率性이 낮다고 하겠다. 그러나 夫婦問題家族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가지 評價基準의 效率性이 입증되었으므로 子女問題를 가진 가족을 치료함에 있어 S. Minuchin의 構造的 家族治療理論을 적용할 경우 그 治療效果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3) 姑婦問題家族에 대한 理論의 適用可能性

表 4-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姑婦問題家族과 正常家族 III간에는 提携는 p<.001 수준에서 유

表 4-13. 各集團의 平均 및 t-test 결과

評價基準	子女問題家族 (N=25)		正常家族 II (N=25)		t-value
	M	S.D	M	S.D	
境界線	3.73	0.633	3.41	0.435	-2.98***
提 携	3.53	0.818	2.23	0.798	-5.72****
適 應	3.28	0.593	3.11	0.494	-1.13

*** p<.01 **** p<.001

表 4-14. 各集團의 權力分布 및 χ^2 -test 결과

權力類型	子女問題家族 (N=25)		正常家族 II (N=25)		Residual
	빈 도(N)	백분율(%)	빈 도(N)	백분율(%)	
男便優位型	3	12.0	3	12.0	0
婦人優位型	0	0	5	20.0	-5
夫婦共同型	22	88.0	17	68.0	5
合 計	25	100.0	25	100.0	
chi-square					D.F.
6.471 **					2

** p<.05

表 4-15. 各集團의 平均 및 t-test 결과

評價基準	姑婦問題家族 (N=20)		正常家族 III (N=20)		t-value
	M	S.D	M	S.D	
境界線	3.93	0.643	3.79	0.643	-0.74
提 携	3.43	0.852	2.00	0.852	-5.49***
適 應	3.35	0.308	3.28	0.308	-0.92

**** p<.001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境界線과 適應 측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한편 權力的 측면에서는 χ^2 -test 결과, 表 4-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姑婦問題家族과 正常家族 III간에는 p<.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姑婦問題家族의 경우는 Minuchin 이론의 가장 重要한 特性이라고 할 수 있는 境界線과 適應(金鍾玉, 1985 : 371-373)에서 正常家族과 뚜렷한 차이가 없으므로 이론의 適用可能性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家族治療者가 姑婦問題를 가진 가족을 對象으로 치료를 할 경우 Minuchin의 構造的 家族治療理論보다는 韓國家族에게 맞는 다른 多樣的 家族治療理論을 活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家族問題類型別 問題家族과 正常家族間의 比較에서 나타난 이상의 結果를 要約하면 表 4-17과 같다.

V. 結論 및 提言

본 연구는 여러가지 家族治療理論들 중에서 Mi-

表 4-16. 各 集團의 權力分布 및 χ^2 -test 결과

權力類型	姑婦問題家族 (N=20)		正常家族 III (N=20)		Residual
	빈 도(N)	백분율(%)	빈 도(N)	백분율(%)	
男便優位型	1	5.0	2	10.0	-1
婦人優位型	8	40.0	4	20.0	4
夫婦共同型	11	55.0	14	78.0	-3
合 計	20	100.0	20	100.0	
chi-square					D.F.
5.143 *					

* p<.1

表 4-17. 各 評價基準別 檢證結果

問題類型	評價基準			
	境界線	提 携	適 應	權 力
夫婦問題家族	○	○	×	○
子女問題家族	○	○	×	○
姑婦問題家族	×	○	×	○

** ○ :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
 × :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nuchin의 構造的 家族治療 理論의 이론적 체계에서 韓國家族의 構造的인 特性을 규명하며 이를 근거로 韓國家族의 家族問題類型別로 Minuchin의 構造的 家族治療理論의 適用可能性을 검토하는데 근본적인 目的을 두고 실시되었는데 이상에서 나타난 結果들을 研究問題別로 要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1) 韓國家族의 家族問題類型과 實態를 把握하기 위해 文獻研究과 實態調査를 병행한 결과, 韓國家族에게서 빈번히 나타나는 대표적인 家族問題의 유형으로는 夫婦問題, 子女問題, 姑婦問題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夫婦問題의 發生頻度가 가장 높았다.

2) Minuchin의 家族評價基準(境界線, 提携, 適應, 權力)에서 韓國正常家族의 家族構造的 特性을 살펴본 결과, 韓國의 正常家族들은 이론이 발전되어온 外國가족에 비해 境界線이 다소 曖昧한 混同된(3.73점) 경향을 보였고 提携(2.08점)와 適應(3.22점)은 外國가족과 거의 類似하여 提携의 경향이 약하면서 適應力은 중간정도로 나타났으며

權力的 경우는 夫婦共同型에 이어 男便優位型이 婦人優位型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인 外國의 경우와는 달리 婦人優位型이 男便優位型보다 더 높은 特徵을 보였다.

3) Minuchin의 家族評價基準(境界線, 提携, 適應, 權力)에서 家族問題類型別 問題家族의 家族構造的 特性을 살펴본 결과, 첫째 夫婦問題家族에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가족하위체계간의 境界線이 대체로 明確하게 나타났다는 점과 夫婦와 媵母간에 提携의 성향이 다소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權力類型的 分포에서 正常家族과는 달리 男便優位型이 婦人優位型보다도 높다는 점이다. 둘째 子女問題家族에서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夫婦와 그 子女간의 관계에서 提携의 경향이 다소 나타났다는 점과 權力類型的 分포에서 婦人優位型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셋째 姑婦問題家族에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家族下位體系간의 境界線의 측면에서 混同된 경향이 다소 높고 提携의 경향이 나타나며 適應力 또한 두드러지게 높다는 점이다.

4) 家族問題類型別 問題家族과 正常家族의 家族構造를 비교하여 이들 問題家族에 대한 Minuchin의 構造的 家族治療理論의 適用可能性을 검토해 본 결과, 첫째 夫婦問題家族의 경우는 家族評價基準 중 境界線($p < .01$), 提携($p < .001$), 權力($p < .01$)側面에서 두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 Minuchin이론의 適用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子女問題家族의 경우도 夫婦問題家族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境界線($p < .01$), 提携($p < .001$), 權力($p < .05$)측면에서 正常家族과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 Minuchin 이론의 適用可能性이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姑婦問題家族의 경우는 위의 두 문제유형가족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 提携($p < .001$)와 權力($p < .1$)에서는 正常家族과 차이가 있었으나 構造的 家族治療理論의 核心이라고 할 수 있는 境界線과 適應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없어 Minuchin이론의 適用可能性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姑婦葛藤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Minuchin이론 이외에 보다 效果的인 治療異論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研究結果를 綜合해 볼 때 나타나는 몇 가지의 뚜렷한 特性과 그 특성들이 示唆하는 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家族構造分析 결과에서 나타난 家族構造上의 特徵으로 韓國正常家族의 境界線의 明確性 정도, 즉 混同程度가 외국가족과는 달리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점과 正常家族이나 3가지유형의 問題家族 모두 가족내·외적인 stress에 대한 適應力에서 正常家族과 問題家族間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家族構造上의 두드러진 2가지 특징은 家族集團의 維持와 繼承을 중시하는 家族主義와 調화와 均衡을 추구함으로써 忍耐하는 삶을 미덕으로 삼아온 民族의인 特性이 투영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個人主義로 특징지어지는 서구문화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家族治療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文化的 差異에서 기인하는 韓國家族의 獨特性을 반영시켜 기존의 외국이론들을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며, 또한 韓國家族만의 이러한 獨特性을 근거로 한 韓國的 家族治療理論을 개발해 나가는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家族構造 分析結果중 正常家族의 權力유행의 분포경향을 보면 家族內權力의 主導權을 夫婦가 공동으로 가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이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婦人優位型인 가족보다도 男便優位型인 가족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남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男便優位型보다는 婦人優位型, 즉 婦人이 가족내에서 權力的 주도권을 잡고 있는 가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權力分布 성향에서의 변화의 원인은 경제구조와 사회적 가치관에서 나타나는 오늘날의 사회적 풍토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家長이 가족의 중심점이 되어 모든 가족원을 부양하며 통솔해 나가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의 家長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족의 經濟力을 확보해 나가는 所得原의 役割만이 두드러져 과거의 가장이 가졌던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위엄과 통솔력은 상당히 약화된 것이다. 李光奎(1990: 106)는 이를 男性의 收入專擔化 傾向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經濟力中心의 社會構造的인 원인 이외에 男便의 權力이 弱化된 또 하나의 원인은 Maclver(1962: 250-251)이 지적한 바와 같이 女性의 地位가 과거의 從屬的인 지위로부터 男便과 對等한 지위로, 또한 사회적 지위 뿐만 아니라 가족내에서의 지위도 크게 변화한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女性의 地位向上이라는 社會的 價値觀의 변화는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競爭中心의 社會構造的인 요인에 의해 男便, 또는 아버지의 家族內 權力이 弱化되어가는 오늘날의 양상은 父不在現象, 家族間의 對話斷絶, 中年期危機, 中年期男性의 높은 死亡率과 같은 여러가지 부차적인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對策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正常家族과 각 가족문제유형별 問題家族의 家族構造의 비교를 통해 Minuchin의 構造的

家族治療理論의 適用可能性을 검토해 본 결과, 姑婦問題家族에 대한 이 이론의 適用可能性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臨床機關에서 姑婦間的 葛藤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치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適用可能性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이론을 선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Minuchin의 構造的 家族治療理論의 韓國家族에의 適用可能性을 家族問題類型別로 나누어 검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가 표준화된 것이 아님으로 해서 普遍性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점, 전가족원의 참여에 의해 형성된 家族構造를 주로 3,40대 부인의 입장에서만 평가한 점, 그리고 適應力과 結束力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정상으로 추출된 가족이 실제의 正常家族을 대표하고 있는지에 관한 代表性의 문제와 같은 研究過程上의 몇가지 制限點으로 인해 연구결과를 一括적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制限點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意義를 찾자면 본 연구는 正常家族과 問題家族의 비교를 통해 家族構造의 特性을 규명하고 韓國家族의 固有한 文化的 特性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權力을 측정함에 있어 意思決定問項別로 加重值를 주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實質的인 權力을 측정하고자 시도하였는데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와 관련된 後續研究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制限點을 補完할 수 있는 方法論的인 노력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家族治療의 效率性을 極大化시키기 위해서는 Minuchin 이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 導入되어 있는 기타 여러가지 家族治療모델에 대해서도 이론의 韓國的 再照明作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參考文獻

- 1) 가족환경연구회(1988). 가족과 환경. 서울 : 교문사.
- 2) 김용구 · 이기숙(1976). 韓國의 姑婦關係 -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서울 : 靑林閣.
- 3) 김종옥(1985). 사회사업실천에 있어서의 가족치료. 연세논집 12, 367-377.
- 4) 金孝南(1984). 韓國家族治療에 있어서 Minuchin의 構造的 家族治療理論의 適用可能性. 崇田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5) 金孝淳(1989). 構造的 家族治療 活用に 관한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6) 박경애(1986). 정서장애자에 대한 가족체계적 접근.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7) 朴英淑(1987). Minuchin의 理論體系內에서의 韓國家庭의 姑婦關係에 관한 研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8) 裴光雄(1986). 障礙家族의 再活을 위한 構造的 家族治療의 接近 研究. 社會복지학지 8, 35-55.
- 9) 변기연(1988). 家族治療에 있어 構造的理論의 觀點에서 본 韓國情緒障礙兒童의 家族特性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10) 서울백제병원(1987). 家族治療의 理論과 技術. 2 (2).
- 11) 손옥주(1984). 재가출아동 치료과정에서 가족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崇田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12) 宋聖子(1985). 韓國夫婦間的 의사소통유형과 家族問題에 관한 研究. 崇田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13) 宋聖子(1987). 家族關係와 家族治療. 서울 : 弘益齋.
- 14) 송수식(1986). 가족간의 갈등. 대화기독교 사회복지관 편저. 나 그리고 또 하나의 나. 서울 : 집문당.
- 15) 玉先花(1989). 現代 韓國人의 家族主義價値에 대한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16) 유순덕(1987). Circumplex Model에 입각한 한국의 임상가족과 일반가족의 비교 연구. 延世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17) 劉永珠(1987). 新家族關係學. 서울 : 敎文社.
- 18) 윤유경(1986). 한국의 고부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19) 윤현봉(1985). 부부간의 권력 관계에 관한 연구 - R.블러드와 D.울프의 상대적 자원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20) 李東植(1981). 韓國人의 主體性과 道. 서울 : 一志社.
- 21) 이흥우 외 6인(1988). 한국적 사고의 원형 - 8

- 원천과 흐름.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22) 이효재(1988). 가족과 사회. 서울 : 진명출판사.
- 23) 이효재 · 김주석(1978). 한국여성의 지위. 서울 :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 24) 임정희(1978). 가족권력구조와 자녀의 부모에 대한 태도.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25) 정현희(1977). 시간적 차원에서 본 가족의 가치관 연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26) 조취일(1984). 임상사회사업에 있어서의 가족치료 접근법에 대한 소고. 서울여대집 13, 342-350.
- 27) 崔松植(1986). 精神分裂症患者의 家族治療에 있어서 Minuchin의 理論과 그 適用에 關한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28) 崔在錫(1983). 韓國家族研究. 서울 : 一志社.
- 29) 崔在錫(1983). 韓國人的 社會的 性格. 서울 : 開文社.
- 30) 崔在錫(1985). 現代家族研究. 서울 : 一志社.
- 31) 韓南濟(1984). 韓國都市家族研究. 서울 : 一志社.
- 32) Blood, R.O. & D.M. Wolfe(1960). Husband and wives : the dynamics of married living. New York : The Free Press.
- 33) Bowen, M.(1972). Family therapy : theory and practice. Gardner Press, Inc.
- 34) Foley, V.D.(1974). An introduction to family therapy. New York : Grune and Stratton Inc.
- 35) Guler, O.F.(1991). A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proximity and hierarchy as dimension of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 30(1), 121-133.
- 36) Guerin, P.J.(1976). Family therapy :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 Garder Press, Inc.
- 37) Gurman, A.S. & David P. Kniskerm eds.(1981).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 Brunner/Mazel Publishers.
- 38) Hoffman, S.(1981). Foundations of Family therapy. New York : Basic Books.
- 39) Horal, L.R., Ann, C.G. & Jane, N.(1979). Communication in couples and families. In W.R. Burr, R. Hill, F.I. Nye & I.L.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Vol. 1). New york : The Free Press.
- 40) Minuchin, S.(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ssachusetts : Havard University Press.
- 41) Minuchin, S., Baker, L. & Roseman, B.L.(1978). Psychosomatic families : anorexia nervosa in context.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42) Minuchin, S., Baker, L., Roseman, B.L., & Fishman, H. C.(1981). Family therapy technique. Cambridge : Havard University Press.
- 43) Olson, D.H., Porter, J., & Lavee, Y.(1985). FACES III.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44) Rollins, B.S. & Bahr, S.J.(1976). The theory of power relationships i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619-627.
- 45) Safilios-Rothschid, C.(1970). The study of family power structure, A review 1960~1969.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539-551.
- 46) Safilios-Rothschid, C.(1976). A Macro-and micro examination of family power and love : an exchange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355-362.
- 47) Walsh, F.(1982). Normal family processes.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48) Walter, Robillard, Jing, Tseng & Geoffery(1983). Cultural variations in family attitude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rap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2.
- 49) Wynne, L., Ryclcoff, I., & Hirsh, S.(1958). Pseudomutuality in the family reiations of schizophrenias. *Psychiatry* 21, 205-220.